

玉洞 李滉의 輓詩를 통해 본 朝鮮朝 輓詩의 一 樣相

윤재환*

Ⅱ 차례 Ⅱ

- I. 序論
- II. 輓詩의 傳統과 玉洞의 輓詩
- III. 玉洞 輓詩의 特性과 意味
- IV. 玉洞의 輓詩에 드러난 死生觀
- V. 結論

【국문초록】

이 글은 玉洞 李滉의 輓詩를 대상으로 한 글이다. 이 글은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옥동 이서라는 인물의 시문학 세계에 대한 구체적 탐색이라는 대주제 아래에 이루어지는 연속 작업의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옥동 이서의 만시를 대상으로 하여 그의 만시가 지니는 특성과 의미, 만시 속에 드러난 옥동의 사생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이 글을 통해 확인한 옥동 이서의 만시를 조선조 도학자의 만시로 확장해 볼 수 있다면, 이 글은 조선조 도학자의 만시가 지니는 특성을 설명하는 단초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 글의 잠재적인 목표이다.

옥동 이서는 모두 55題 67首의 輓詩를 창작하였다. 그의 시 1,300여 首 중 약 5%에 해당하는데, 옥동의 만시는 만시 창작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죽음 이후 자신이 느끼는 서러움의 정서에 주목하기보다는 대상 인물이 살아왔던 삶의 과정과 정신세계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옥동의 만시는 悲嘆보다는 稱揚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평소 옥동이 생각하고 있었던 대상 인물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었다. 옥동의 만시는 세 가지 특성을 지니는데, 첫째는 그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만 만시를 창작하였다는 창작 대상의 선택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옥동이 만시의 창작 대상이 되는 죽은 사람이 생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삶의 내용에 주목했다는 것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는 그의 만시가 비탄의 정서보다 칭양을 위주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의 만시가 자신이 느끼는 서러움의 토로와 함께 주변 사람들을 교화하는 교육적 도구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는 개인 정서의 억제이다. 이는 옥동의 만시가 유가적 도덕 교육의 도구로, 비탄보다 칭양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옥동의 만시는 유가적 의식세계에 확고했던 옥동이라는 인물이 주변 인물의 죽음을 접하고 느낀 안타까움과 함께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유가적 도를 구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은 만시의 일반적 기능에서는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만시의 본래 기능에 충실한 것이다. 그것은 생전에 옥동이 이들과 교유하여, 옥동이 죽은 사람의 성품과 행적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옥동은 만시를 통해 그들이 추구하고 지향했던 세계를 분명히 밝힌 것이고 또, 이를 통해 죽은 사람을 올바른 방향에서 진심으로 애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교화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옥동의 만시는 그가 추구하고 있었던 세계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추구하고 있었던 세계까지 서술하여 죽은 사람을 稱揚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옥동의 만시는 조선조 도학자들의 만시가 지니는 전형적인 모습의 하나를 확장한 것이라고 유추된다. 다만, 이와 같은 생각을 구체화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대 창작된 도학자들의 다양한 만시와 옥동의 만시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이 그와 같은 단계에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글은 조선조 당대 도학자들의 만시가 지니는 보편적 속성 탐색을 위한 시론의 하나가 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주제어 : 옥동 이서, 도학자, 만시, 비탄, 칭양

I. 序論

이 글은 玉洞 李滉의 輓詩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글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익히 잘 알려진 것처럼, 옥동 이서는 文人이라기보다는 道學者였다. 도덕적 수양을 최상의 가치에 두고 그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과 사회의 모습까지 도덕적으로 교화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물과 輓詩라는 문학 양식 사이에는 일종의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만시는 시문학 양식의 한가지이지만, 특수한 상황과 공간에서 창작되다는 점에서 창조성보다 의례성과 관습성이 드러나기 쉬운 문학 양식이다. 그 내용 역시 비탄과 청양 두 층위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만시에는 종종 죽은 사람의 생을 과장하거나 작가의 정서를 확대하는 왜곡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世間에서는 과장과 확대가 구현된 만시를 좋은 만시라고 칭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도덕적 수양을 통한 진실 세계의 구현과 흐트러짐 없는 中正한 정서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강조하는 도학자의 성격과 만시의 속성은 상당한 거리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도학자들이 적지 않은 수의 만시를 창작했다. 도덕적 수양을 강조한다고 해서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수양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인물의 죽음은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가장 큰 충격이 되기 때문에 도학자들의 만시 창작 역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학자들의 만시 창작이 당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의 만시가 문인 일반의 만시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것은 도학자들과 문인 일반이 지니는 세계관과 의식이 동일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술한 것과 같이 옥동 이서는 스스로 도학자를 자처하였고, 주변에서도 그를 도학자로 인지하였다. 누구보다 철저한 도덕의식을 지니고 있었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의식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평생 약 1,300여 수의 시를 창작했지만, 그 대부분이 도학적 속성을 지닌 시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옥동을 도학자 전체로 치환하거나 도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렵지만, 그를 도학자의 한 사람으로 보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된다.

도학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옥동의 문학세계, 특히 시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은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옥동의 시 세계에 대한 구체적 탐색이라는 주제 아래 이루어지는 연속 작업의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옥동의 만시를 대상으로 하여 그의 만시가 지니는 특성과 의미, 만시 속에 드러난 옥동의 사생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것이 이 글의 첫 번째 목표이자 의미이다.

이 글에서 옥동의 만시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앞서 간단하게 언급한 것과 같이 도학자인 옥동의 만시는 문인 일반의 만시와 다를 것이라는 전제 때문이다. 이 글을 통해 옥동의 만시가 조선조 도학자의 만시로 인정된다면, 이 글은 조선조 도학자의 만시가 지니는 특성을 살펴보는 단서를 제공해주는 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전술한 것과 같이 옥동을 도학자 전체로 치환하거나 도학자의 대표로 간주할 수 없는 만큼, 옥동의 만시도 도학자 만시의 대표나 전형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소한 그의 만시가 지니고 있는 성격이 옥동의 의식세계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의 만시가 지니는 특성을 조선조 도학자 만시의 특성 중 하나라고 가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특성을 도학자 만시의 근본적인 성격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증명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이 글에서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옥동의 만시를 조선조 도학자 만시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면, 이 글은 조선조 도학자의 만시가 지니는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 글의 잠재적 목표이자 의미이다.

II. 輓詩의 傳統과 玉洞 輓詩의 類型

輓詩란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여 지은 시를 말한다. 輓詞나 輓章 등과 함께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동양의 전통적인 문학 형식으로 그 유래가 아주 오래 되었다. 그렇지만 대부분 輓詩라고 하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문학 양식으로 치부해 버린다. 현재까지 남아 전하는 輓詩들을 보았을 때 그와 같은 평가가 일면 타당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輓詩를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문학 양식으로만 치부해 버리기는 어렵다.

시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느낀 삶의 정서를 문자로 표현해 낸 것이라고 했을 때, 輓詩는 시의 창작 동기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의 하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한 개인이 느낄 수 있는 결핍감 중 주변 사람의 죽음이 주는 결핍은 置換하거나 代替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결핍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만시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결핍의 정서, 즉 살아남은 자의 외로움과 안타까움을 노래하는 정서적인 행위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만시는 원천적으로 죽음의 의미를 깨거나 삶과 죽음에 대한 심오한 사색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만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작가의 기본적인 정서는 죽은 사람으로 인해 느끼게 되는 살아남은 사람의 슬픔이 된다. 최재남은 哀悼詩[輓詩]를 그 대상에 따라 悼亡, 哭子, 哭兄弟, 悼朋으로 나누고, 그 내용으로 悲嘆, 鎮魂, 稱揚을 들고 있지만,¹⁾ 안대희의 말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창작된 만시 가운데 鎮魂을 내용으로 한 만시는 찾아보기 어렵다.²⁾

1) 최재남, 『韓國哀悼詩研究』,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p.42.

2) 안대희, 「한국 한시와 죽음의 소재」, 『韓國 漢詩의 分析과 視角』,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p.60.

또, 만시 창작의 대상 역시 부인이나 자식, 형제, 친구로 제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창작된 만시의 경우 그 창작의 대상 범주를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넓다. 가족이나 친적·친지·선후배·동료·친구에서부터 同鄉이나 他鄉의 顔面 있는 인물들과 임금을 비롯한 왕족까지 만시의 창작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만시는 존재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창작된 문학 양식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代人挽이라는 제목의 만시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만시의 경우 죽은 사람을 자신이 알지 못하지만, 주변에서 그를 위해 만시를 지어달라고 청하여 쓴 시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목의 만시는 주변 사람들에게 文名을 인정받은 문인이 주로 창작하였다. 이렇게 代人挽이라는 제목의 만시까지 창작되었다는 것은 만시의 창작이 관습화·의례화 되었음을 의미한다. 喪禮의 정착과 보편화로 인한 결과라 짐작되지만, 만시의 창작이 관습화·의례화 되면서 만시에 담기는 내용도 죽은 사람을 통해 느끼게 되는 살아남은 사람의 슬픔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稱頌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앞서 최재남에 의해 언급되었던 만시의 내용 중 悲嘆이 稱揚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만시의 내용이나 만시 속 정서의 변화는 관습화된 만시의 창작이 인간 본연의 정서를 읊어내는 자연스러운 문학 활동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인위적인 의식적 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양 사회에서 만시 창작의 유래는 오래되었다. 중국에서는 이미 『文選』의 23권에 哀傷이라는 분류를 두었고, 우리나라에서는 「公無渡河歌」와 「祭亡妹歌」에서부터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漢詩의 경우 고려 明宗이 內嬖 明春의 죽음을 슬퍼한 悼亡詩를 지었다³⁾고 한 것으로 보아 일찍

3) 『高麗史』卷 20, 「明宗」, “庚戌內嬖明春死, 王哀戀不已失聲號哭. 太后驚駭寬譬之曰; ‘雖是情鍾然, 不可使聞於重房也.’ 然猶嗚咽不能止, 遂親製悼亡詩, 令宗親和進

이 고려시대에서부터 만시를 창작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려 중기 이후의 문인들이 창작한 만시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으나 그 수효가 그다지 많지 않다. 林椿이나 李奎報, 李穡 등 고려시대 문인들의 문집 속에서도 만시를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수가 소략하고, 『東文選』에도 林椿의 「李平章光縉挽詞」, 李仁老의 「文相國克謙挽詞」·「韓相國文俊挽詞」, 郭瑠의 「韓僉議大淳挽詞」, 李齊賢의 「菊齋權文正公挽詞」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창작한 만시 5수가 수록되어 있지만, 나머지 11수의 만시는 崔滋의 「元德太后挽詞」, 崔瀼의 「太尉王挽詞」·「金童公主挽詞」 등과 같이 왕이나 왕족을 대상으로 하여 창작된 의식적인 행위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시가 대량으로 창작되기 시작한 시기는 조선조, 특히 조선 중기 이후에 들어선 다음이라고 보이고, 조선 중기 이후에 와서 만시가 시의 중요한 형식 중 하나가 된 까닭은 조선 중기 이후 정착된 상례의 보편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상례에서 만시를 적은 만장의 사용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만시의 창작이 일반화되었다는 것이다. 고려시대 귀족들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던 만장의 사용이 시대가 진전될수록 일반 사대부에서 서민들에게까지 확대되면서 만시의 창작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그것은喪이 나갈 때 그 뒤를 따르는 銘旌과 輓章의 수가 죽은 사람의 지위와 신분, 사회적 영향력을 상징하는 기준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⁴⁾ 이렇게 보았을 때 한국 한시사에서 만시의 창작이 본격화된 시기는 조선 중기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시의 창작이 본격화되고 관습화되면서 많은 수의 만시가 비탄

以自慰.”

4) 安大會, 「韓國 漢詩와 죽음의 문제」, 『韓國漢詩研究』 3, 韓國漢詩學會, 1995, pp.50-51.

에서 칭양 위주로 그 내적 정서를 바꾸었고, 상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의례적 문학 양식으로 변모되었다. 죽은 사람과 작가가 생전에 맺어두었던 긴밀한 유대관계가 만시 창작의 전제가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만시 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조선 중기 이후에 와서 많은 수의 만시가 이러한 인간적인 유대관계나 개인적인 친분보다 청탁에 의해 양산되면서 만시는 의례적 문자 행위로 변질되는 양상을 보여주게 되었다.

의례적이고 관습적인 행위이던, 개인적 친분 관계에 의한 창작이던 만시는 본질적으로 특유의 상투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만시가 시적 대상의 죽음이라는 특별한 상황 아래에서 창작되는 특수한 문학 양식이기 때문이다. 문학적 형상화의 방법과 수사 기법의 차이에 의해 각각의 만시 작품이 지니는 문학성의 質量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만시 속에 드러나는 작가의 정서는 동일하다. 죽은 사람의 평생을 칭송하고 드높이며 그의 죽음이 가지고 오는 사회적 결여와 공백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시 속에 담든, 죽은 사람으로 인해 느끼게 되는 작가 개인의 슬픔과 외로움을 담아내든 만시의 내용은 결핍을 기본적인 정조로 한다. 이렇게 창작의 배경과 내용,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정서의 동질성이 만들어내는 상투성은 만시의 문학성을 저해하는 근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조선 중기 이후 창작된 많은 수의 만시가 喪禮라는 죽음의 의식을 위한 의례적인 문학행위로 변모되어갔다고 해서, 모든 만시가 상투성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다. 물론 이와 같은 언급이 당대 모든 작가의 만시가 상투성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어떤 한 작가의 만시 전체가 그와 같은 상투성을 넘어섰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에 대한 작가의 진솔한 정서를 담고 있는 문학적으로 뛰어난 만시가 창작되어 아직까지 독자의 심금을 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 대상의 죽음에 대한 작가의 진정

어린 슬픔이 진솔한 문학적 표현으로 구상화 된 만시가 문학적으로 뛰어난 만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玉洞 李滉의 경우 모두 55題 67首의 輓詩를 창작하였다. 그의 문집인 『弘道先生遺稿』 속에 수록된 시가 모두 1,300여首라는 점에서 옥동이 일생동안 창작한 시의 약 5% 정도가 만시에 해당한다. 많은 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결코 적은 양이라고 하기도 쉽지 않다. 그것은 옥동이라는 인물이 20대 후반 抱川의 淸涼浦에 은거하여 세상과 관계를 끊은 후 집안의 大事가 있거나 혹은 동생 星湖의 교육과 모부인 權氏에게 인사를 드릴 때를 제외하고는 은거지를 떠나지 않았고, 은거지에서 修道와 講學에만 열중한 學者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文士의 경우 평생 67수의 만시를 지었다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은거지에서 일평생을 보낸 학자였던 옥동의 성격을 고려해 본다면 옥동이 67首의 만시를 지었다는 것을 가지고 그 수를 적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이렇게 은거했던 인물인 옥동의 문집 속에도 67수의 만시가 수록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옥동의 만시 창작 행위 역시 기본적으로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⁵⁾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옥동의 경우 스스로 학자를 자처하였고, 주변에서도 그를 학자로 인정하고 따랐다는 점에서 옥동은 흔히 말하는 文士들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 인물이다. 대중의 도덕적 교화를 자신의 책무로 여겼고, 도덕적으로 수양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양된 인물에 의한 凡人의 교육을 강조했던 철저한 도덕 지상주의자였다.⁶⁾ 그는 문학이 인간을 자극하고 욕구를 증폭시켜 인간의 도덕적 타락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5) 朴浚鎬, 「惠賓 李用休 文學 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9. 10, 128면.

6) 尹載煥, 「玉洞 李滉의 理·氣對立의 思惟樣式과 그 意味」, 『東洋古典研究』 49, 東洋古典學會, 2012, pp.204-211.

문학을 철저하게 배격한 인물이었다.⁷⁾ 옥동의 이와 같은 인식세계로 보아 그의 만시가 아무리 사회적 분위기에 연계된 상투적인 문학 양식이었다고 하더라도, 옥동의 만시는 일반적인 문사들의 만시와 다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게 해 준다.

흔히 도학자 혹은 성리학자들의 만시는 표면적으로 이승과 저승이라는 서로 다른 세계가 소통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儒家思想이 지니고 있는 현세적 성격으로 인해 현실적 성격을 주로 보여 준다고 한다. 도학자들은 죽음을 두고서도 시적 대상 인물이 일생 동안 보여주었던 현실적 삶의 가치를 부각하여 敎示의 典範으로 강조함으로써 만시에서 오히려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와 정서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만시가 대상 인물의 죽음이라는 절대적 상황 앞에서 도학자들이 추구하고 구현하고자 했던 이상적 삶의 면모를 정리해서 보여 준다는 점에서 도학자들의 세계관과 내면 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긴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⁸⁾

이와 같은 주장은 도학자들의 만시가 지니는 보편적인 속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이는데, 옥동의 만시도 이 언급을 그리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옥동 이서의 만시는 만시 창작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죽음 이후 자신이 느끼는 서러움의 정서에 주목하기보다는 대상 인물이 살아왔던 삶의 과정과 정신세계에 대한 서술을 중심으로 한다. 옥동의 만시는 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과 자신이 생전에 맺었던 인간관계를 진술하기도 하지만, 이 인간관계가 시의 중심에 놓이지 않는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옥동이 만시

7) 尹載煥, 「玉洞 李澈의 文學觀 研究」, 『東方漢文學』 27, 東方漢文學會, 2004, pp.228-237.

8) 전재강, 「寒岡 挽詩의 성격 연구」, 『국어교육연구』 46, 국어교육학회, 2010, pp.247-248.

를 창작하면서 주목했던 것은 만시 창작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보여주었던 생전의 행위와 그가 지니고 있었던 삶의 자세였다. 따라서 옥동의 만시는 悲嘆보다는 稱揚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평소 옥동이 생각하고 있었던 대상 인물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었다. 이는 다른 말로 옥동의 만시는 옥동이 생각하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Ⅲ. 玉洞 輓詩의 特性和 意味

앞 장에서 옥동 이서의 만시를 도학자의 만시로 규정하였고, 그의 만시는 悲嘆보다는 稱揚을 중심으로 하며, 옥동이 지니고 있었던 대상 인물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그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서술은 그의 만시가 문학 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상 인물에 대한 최종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행위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급은 옥동의 만시가 지니는 문학성을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은 옥동의 만시가 문학성을 지닌 문학 작품인 것은 분명하지만, 옥동에게 만시의 창작이 의미 있는 행위로 간주된 것은 그것이 죽은 사람의 결핍으로 인해 자신이 느끼게 되는 서러움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문학적 도구로만 기능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만시가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의 삶을 칭양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는 교육적 도구로도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옥동의 만시가 지니고 있는 몇 가지 특성 때문이다. 옥동의 만시가 지니는 첫 번째 특성은 창작 대상의 선택에서 찾

을 수 있다. 앞 장에서, 은거했던 옥동의 문집 속에도 67수의 만시가 수록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옥동의 만시 창작 역시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옥동의 만시 창작 행위 자체가 당대의 보편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유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보아야 하겠지만, 만시 창작의 대상이나 방법, 내용에서는 당대의 보편적인 경향과 일정한 거리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우선 옥동의 만시에는 1수의 시를 제외하고는 代人作의 속성을 지닌 시가 없다. 그 1수의 시도 고모부[姻叔]를 대신하여 쓴 7언율시 『代姻叔題挽』이라는 점에서 당대 창작된 만시가 지니는 가장 큰 문제점인 ‘알지 못하는 죽은 사람을 위한 관습적인 창작’에서는 한걸음 빗겨나 있다고 생각된다. 李學逵의 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⁹⁾ 조선 후기 창작된 만시의 상당수가 주위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죽은 사람과는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창작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만시의 창작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만시가 지니는 특수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옥동의 만시에서는 이와 같은 당대의 관습적인 창작의 예를 찾기 어렵다.

9) 李學逵, 「與」, 『洛下生集』 10冊, 「因樹屋集」, “此鄉之人, 每遇鄰里喪死, 不論樵翁牧豎餅師酒婆, 動費一張紙本, 東西奔馳, 乞爲輓詩. 其有衣冠舊族, 城府良家, 不惟乞爲輓詩, 仍復乞爲祭文. 三家邨中稍解訓蒙者何限, 而都是胡叫杜撰, 動謂應舉時文, 或請點改, 或乞評語, 至如問喪慰疏, 求婚訊簡, 舉謂京華人定識體面, 點簿按實, 具牒紀詳, 亦謂文翰家必有見聞, 鱗集蟻附, 牢不可拒. 不謂渠所切須, 動稱爲我消遣. 假使此輩, 爲我損卻一毛, 勞卻一指, 定是掉頭亟走, 惟自秣我精光, 速我衰朽耳, 此三苦也.”

玉洞 李湊 輓詩 分類表

연번	제목	수량	형식	대상	비고	연번	제목	수량	형식	대상	비고
1	悼尹尙丈以勉	1	7언절구	尊丈		29	挽朴友闇君悅	1	7언절구	友人	
2	哭鄭威丈搏	1	5언율시	尊丈		30	挽韓高城	1	5언율시	姻戚	
3	挽尹誠之	1	7언고시	友人		31	挽李處士子常	1	7언절구	後學	
4	挽李奉朝賀	1	5언고시	尊丈		32	挽鄭丈 洙閔	1	5언율시	尊丈	
5	悼楊根處士李丈保晚甫	1	5언고시	尊丈		33	挽鄭丈 鎰	1	5언율시	尊丈	
6	挽金處士碩堅丈	2	5언고시 7언절구	尊丈		34	挽表堂姪李宜復	1	5언율시	堂姪	
7	代姻叔題挽	1	7언율시	代人作		35	挽尹恭齋	1	5언율시	後學	
8	哭尹友道一	2	7언절구	友人		36	哭內從兄際仲甫	2	7언절구	內從兄	
9	挽宗姪李夢休	2	7언율시	宗姪		37	悼李生徵休	1	5언율시	宗姪	
10	哭宗姪夢休	1	5언율시	宗姪		38	悼族孫日煥	1	5언율시	族孫	
11	望哭李鵬瑞	2	5언절구 7언절구	弟子		39	挽朴參奉浩然	1	5언고시	友人	
12	哀俞友義重正路	1	7언절구	友人		40	哀李老兄長源浩如	1	5언고시	友人	
13	挽權安山大夫人	2	5언고시 5언율시	母夫人		41	挽姜仲美	1	5언율시	友人	
14	挽宗姪憲休	1	5언율시	宗姪		42	哀李丈保晚	1	5언고시	尊丈	
15	挽李進士 洙	3	7언율시 7언절구	從兄弟		43	挽沈承旨直夫	2	5언율시 5언절구	友人	
16	哀崔泰仲辭	1	장단구	友人		44	挽崔友鎮漢	1	5언절구	友人	
17	挽宗姪參判震休伯起	1	7언율시	宗姪		45	挽許去非	1	5언율시	後學	
18	悼沈友定齋	3	7언절구	友人		46	弔李宜白妻元氏	1	5언율시	姪婦	
19	過眞木亭悼澤甫	1	5언절구	友人		47	懷亡友李老兄海如	1	5언고시	友人	
20	看秋悼澤甫	1	5언절구	友人		48	挽李孟元	1	5언고시	尊丈	
21	挽沈定齋	2	5언율시 7언절구	友人		49	哀鄭友周瑞	1	5언고시	友人	
22	挽鄭學柱	1	5언율시	姻戚		50	懷老尊丈李僉知公	1	5언고시	尊丈	
23	挽申淸州必淸	1	5언율시	姻戚		51	挽姊兄洪僉知	1	5언율시	姊兄	
24	挽曹友處士夏英	1	5언율시	友人		52	挽許參奉宜	1	5언율시	友人	
25	哀崔進士錫之	1	7언절구	後學		53	挽權持平斗紀	1	5언율시	友人	
26	挽韓高歆	1	5언율시	友人		54	挽權參判	1	7언율시	友人	
27	輓金子心	1	5언율시	友人		55	挽李萬戶河濟	1	5언절구	後學	
28	挽李進士漢導	1	5언고시	友人							

옥동의 만시 55題 67首를 간단하게 분류해 보면 대략 위의 표와 같이 정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옥동의 만시가 55題 67首라는 것은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연작시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의 만시 55題 67首는 거의 50명 정도의 인물을 대상으로 하여 창작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의 만시 67수 중에서 2수 이상의 만시에서 창작의 대상이 된 인물들을 들어보면 尹道一 2首, 李保晩 2題 2首, 李夢休 2題 3首, 李鵬瑞 2首, 權大夫人 2首, 李洙 3首, 沈得經 2題 5首, 李仲甫 2首, 沈直夫 2首로 모두 9명이다. 이 중 권대부인은 옥동의 모부인이고, 이수와 이중보는 종형제, 이몽휴는 조카, 李保晩은 옥동의 친구인 李長源의 부친, 윤도일·심득경·심직부는 친구, 이봉서는 제자이다. 또, 그의 만시 67수를 살펴보면 『代姻叔題挽』 1수의 만시를 제외한 옥동의 만시 66수의 창작 대상들이 모두 옥동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옥동의 만시 창작이 비록 당대의 보편적인 사회 분위기와 연관된 것이었다고는 하더라도 옥동은 주변 사람들의 청탁에 의한 만시를 창작하지 않았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옥동의 만시 창작은 만시의 창작 대상과 그 자신과의 관계성과 함께 만시의 창작 대상이 되는 죽은 사람이 생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삶의 내용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옥동의 만시 중 만시의 창작 연유에 대해 밝혀 놓은 두 수의 시를 통해 이와 같은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두 수의 만시 서문과 自註에서 옥동은 만시의 창작 이유를 밝혀 놓았는데, 그 첫 번째 시가 『悼尹叅丈以勉』이다. 이 시의 자주에서 옥동은 “공은 천성이 총명하고 마음 씀이 맑고 고요하였는데, 세상이 어지러워질 것을 보고서는 문을 닫고 수련하여 세상과 접하지 않았다. 經史와 諸子百家的 서적을 두루 보아 견식이 해박하였다. 70여세의 나이로 天壽를 마쳤다[公性聰敏, 操心清高恬靜, 見世之將亂, 杜門

脩煉, 不與世接. 博覽經史百家, 見識該博. 年七十餘, 以天年終]”고 하였고, 다른 한 수의 시인 『弔李宜白妻元氏』의 서문에서는 “이 부인은 집안 조카 이의백의 아내이다. 용모가 몹시 빼어났으며 성품이 어질고 효도하며 예를 좋아했다. 시부모님을 보실 때에 힘과 마음을 다했으며 늘 뜻을 만드는 것으로 주를 삼아 섬겨 그 자신의 몸을 두지 않았으니 참으로 옛날의 어질고 밝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내가 그 덕에 감동하여 4운의 시 한편을 지어 칭송한다[此婦人, 乃戚姪李宜白婦也. 容顏絕特, 性仁孝好禮. 事舅姑竭力盡心, 每事以養志爲主, 能不有其身, 眞古之賢哲也. 余感其德, 賦四韻一詩以頌服焉]”고 하였다. 옥동의 언급을 살펴보면 옥동이 이 두 사람에 대한 만시를 창작한 이유가 이들이 儒家的 도덕관념에 충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옥동의 만시는 만시의 창작 대상과 그 자신과의 관계성과 함께 만시의 창작 대상이 생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죽은 사람이 살았던 삶의 내용과도 상당한 관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옥동에게 만시는 죽은 사람으로 인해 자신이 느끼는 서러움을 드러내는 도구이자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인물의 삶을 칭양하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교화하는 교육적 도구로 기능하였다는 뜻이 된다.

옥동의 만시가 지니는 두 번째 특성은 그의 만시가 비탄의 정서보다 칭양을 위주로 한다는 것이다. 이 두 번째 특성은 첫 번째 특성과 연계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의 만시가 주변 사람들을 교화하는 교육적 도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칭양이 중심이 되어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시를 보도록 한다.

忘年許知己

終始一交情

나이를 잊고서 지기로 허락하시니

처음부터 끝까지 사귄 정 한결 같았었지.

慾寡常沉靜	욕심 적어 늘 침착하고 조용했으며
心和自正平	마음 온화해 절로 바르고 공평했었지.
謹慎寧生辱	삼가고 삼갔으니 어찌 욕될 일 있겠고
謙虛不欲名	겸손하게 낮추어 명예 구하지 않았었지.
德高無一命	덕 높아도 한 목숨 누리지 못했으니
天理儘難明	하늘의 이치 밝게 알기 참 어렵네.

念昔姻兄弟	옛날 자형을 생각해보면
深情尙保全	깊은 정을 오히려 보전했었지.
一家治有法	온 집안 다스림에 법도 있었고
百行孝爲先	모든 행동에 효를 우선 삼았었지.
慮事明常照	일을 생각할 때는 밝음으로 늘 비추었고
急難義直前	급하고 어려움에도 의로 앞으로 나아갔지.
揚名身後在	이름 떨치는 건 죽고 난 다음에 있으니
德美必流傳	덕의 아름다움 반드시 흘러 전하리.

두 수의 시는 모두 옥동의 문집 권 4에 수록되어 있는 시로 옥동의 만시 중 32번째 시인 「挽鄭丈 洙閔」과 51번째 시인 「挽姊兄洪僉知 諱潁」이다. 이 두 시의 대상이 되는 鄭洙閔과 洪潁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다만, 東州 李敏求가 쓴 「全昌君柳公墓碣銘」¹⁰⁾과 雪峯 姜栢年の 「成祿大夫全昌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柳公墓誌銘」¹¹⁾을

10) 李敏求, 「全昌君柳公墓碣銘」, 『東州先生文集』 卷 10, “兄舉二男二女, 男長淦, 卽參判公, 次滄, 郡守, 女長適進士李重揆, 次適學諭鄭華齊. 參判六男, 以泰·以謙·以升·以井·以復·以節, 五女, 姜萬碩·朴純·沈柑·鄭來祥·一幼, 郡守二男, 以震·以鼎, 二女, 鄭洙閔·一幼, 進士二男, 玄賞·玄竄. 學諭三男, 度玄·度弘·一幼, 三女, 金文遠·趙頤壽·韓宗運.”

11) 姜栢年, 「成祿大夫全昌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柳公墓誌銘」, 『雪峯遺稿』 卷 28, “有二男二女, 男長淦, 卽知申公也, 次滄郡守, 女長適進士李重揆, 次適博士鄭華齊. 知申六男, 以泰·以謙·以升·以井·以復·以節, 五女姜萬碩·朴純·沈柑·鄭來

통해 볼 때 鄭洙閔은 光德大夫 全昌君 全州柳氏 素間堂 柳廷亮(선조 24)~1663(현종 4), 字 子龍, 諡號 孝貞)의 둘째 아들 郡守 柳滄(1611년(광해군 3)~미상, 字 和甫)의 큰 사위가 아닌가 생각되고, 洪潁은 通訓大夫로 行刑曹正郎에 제수된 南陽洪氏 洪箕紱의 큰아들(1650년(효종 1)~미상, 字 靜甫)이 아닌가 생각된다.¹²⁾

이 두 사람과 옥동의 다른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 더 자세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인용한 시들을 보면 이들이 모두 유가적 수양에 충실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鄭洙閔의 만사에서 옥동이 “나이를 잊고서 지기로 허락”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옥동과 鄭洙閔은 적지 않은 나이 차이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 두 편의 시에서 옥동이 주목한 것은 두 사람의 생전 행적과 마음 자세였다. “욕심 적어 침착하고 조용”했다거나 “마음 온화해 바르고 공평”했다는 언급과 “삼가고 삼갔다”, “겸손하게 낮추었다”는 표현은 鄭洙閔의 생전 행적을 잘 말해주는 것이고, “집안 다스림에 법도 있었다”거나 “모든 행동에 효를 우선 삼았다”, “일을 생각할 때는 밝음으로 비추었다”, “급하고 어려움에도 의로 나아갔다”는 표현은 옥동이 본 洪潁의 삶이 어떠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 옥동은 그저 “하늘의 이치 밝게 알기 참 어렵다”거나 “이름 떨치는 건 죽고 난 다음에 있으니 덕의 아름다움 반드시 흘러 전하리”라고 했을 뿐이다. 시의 표면에 드러난 언급으로만 본다면 옥동이 이들의 죽음에 대해 그리 큰 안타까움이나 서글픔을 지니고 있었다고 간주하기 어려울

祥·一幼. 郡守二男, 以震·以鼎, 二女鄭洙閔·洪始亨. 李重揆二男玄賞, 玄復, 鄭華齊三男度玄·度弘·度綱, 三女金文遠·趙頤壽·韓宗運.”

12) 여주이씨 가문의 족보를 살펴보면 옥동의 양부인 李周鑣의 사위가 郡守 南陽洪氏 洪鄰이라 되어 있는데, 『司馬榜目』 등의 資料를 보면 洪箕紱의 아들을 洪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글 속의 洪潁과 洪鄰이 동일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이 글에서 확인하기 주저되는 바가 있다.

정도이다. 이런 표현 방법은 옥동이 벗의 죽음을 대하고 쓴 만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仁壽之徵我信之	어질고 수를 누릴 그 조짐 나 믿었지만
今於正路却生疑	지금 정로 죽었으니 참 의심스럽네.
生疑人或流邪畏	의심 생겨 사람들 사악함에 흐를까 두렵지만
爲惡而生不可爲	악을 저지르며 사는 것은 될 수 없는 일이네.

一識荊州面	형주 같은 그대 한 번 만난 그 뒤로부터
常存懷抱中	언제나 마음속에 두어 왔으니
深知宰相器	宰相의 그릇이라 잘 알았고
眞有諫臣風	諫臣의 풍모를 참으로 가졌지
神騎箕星遠	신기는 기성과 함께 멀리 달리고
名齊泰岳崇	이름은 태산과 같이 높았지.
齋心終未展	가진 마음 끝내 다 펼치지도 못했으니
千古恨無窮	천고에 그 한이 끝이 없구나.

天姿恬靜有廉操	천부 자질 고요한데다 청렴하고 지조 있으며
厚德朝中宿望勞	너그러운 덕 조정에서도 촉망 몹시 받았었지.
性好古書常樂志	성품은 옛 책 좋아하여 늘 뜻이 즐거웠고
藝工新篆更揮毫	기에 뛰어나 새 전서에 다시 붓을 휘둘렀지
心存國計誠忠懇	나라 위한 계책 마음에 두어 정성과 충성 간절하고
疏抗天門事業高	대궐에 상소 올렸으니 사업이 우뚝하네.
年位莫嗟猶未滿	수명과 지위 다하지 못했다 탄식하지 말게나
美名他日定崇褒	아름다운 이름 다음에 반드시 높이 기릴 테니.

이 세 수의 시는 모두 옥동과 友人關係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만시이다. 첫 수는 옥동의 문집 권 2에 수록되어 있는 시로 옥동의 만시 중 12번

째 시에 해당하는 「哀俞友義重 正路」이고 두 번째 수는 문집 권 4에 있는 시로 옥동의 만시 중 53번째 시에 해당하는 「挽權持平 斗紀」, 세 번째 수도 문집 권 4에 있는 시로 옥동의 만시 중 54번째 시에 해당하는 「挽權參判 珪」이다.

첫 수의 俞義重은 承旨를 지냈던 杞溪俞氏 俞夏謙(1632년(인조 10)~1691년(숙종 17년), 字 仲撫·受甫)의 아들이자 縣監을 지냈던 俞道重(1657년(효종 8)~미상, 字 一卿)의 동생으로 생각되고, 둘째 수의 權斗紀는 1659년(효종 10)부터 1722년(경종 2)까지 살았던 인물로 본관은 安東이고 자는 叔章 호는 晴沙이며 좌찬성을 지냈던 權機의 5대손이자 蒼雪齋 權斗經의 둘째 동생이고, 셋째 수의 權珪는 刑曹判書를 지낸 安東權氏 石潭 權大運(1612년(광해군 4)~1699년(숙종 25))의 아들이자 巽齋 權重經(1658년(효종 9)~1728년(영조 4))의 아버지로 대사헌을 지냈으며 1648년(인조 26)부터 1722년(경종3)까지 살았던 인물로 보인다. 權珪의 字는 國瑞, 號는 南麓이며, 篆書에 뛰어났다고 한다.

이들의 만시에서 볼 수 있는 정서도 역시 앞서 살펴본 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다만, 權斗紀와 權珪가 관직 생활에 종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생전 업적에 대한 설명이 신하의 직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특히 俞義重의 만시에서 옥동은 그가 어진 사람이었지만 수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악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까 두렵다고 하여, 개인적으로 느끼는 서러움의 감정보다 친구의 죽음에 가지고 올 수도 있는 사회적 害惡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옥동의 만시가 보여주는 이와 같은 모습은 죽음까지도 도덕적 교육의 도구로 삼고자 했던 옥동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公直出天真
筆法自奇格
文才儘絕倫
孝稱今世上
學慕古賢人
未就平生志
天胡遽奪君

공정하고 정직한 건 천진에서 나왔으며
필법은 절로 기이한 품격 갖추었고
글재주는 절륜함을 다했는데
효로 세상에서 일컬음 받고
학문은 옛 현인을 사모했지만
평생의 뜻 이루기도 전에
하늘은 어이하여 이리 급히 그대 데려갔다.

生長同鄰里
知君直若松
操持清不濁
稟賦俊非庸
行事元無忒
文辭亦可宗
有才其奈命
餘慶定無窮

이웃 마을에서 같이 나고 자라
그대 소나무 같이 곧다는 것 잘 아니
지조는 맑아 탁해지지 않고
받은 성품 뛰어나 용열하지 않았네.
일 처리 애당초 틀리는 것 없었고
문장도 한 시대 으뜸 될 만 했었는데
그 재주 가졌지만 그 운명을 어찌하겠나만은
남은 경사 정녕코 끝이 없겠지.

良順且靜正
文華大過人
如何天降禍
亦及子之身

어질고 순후하며 또 맑고 바른데다
문장 솜씨 남들을 훨씬 뛰어넘었는데
어찌하여 하늘은 재앙을 내려
그대 몸에 이렇게 미치게 하는가.

犁牛之子騂且角
人也胡爲天禍極
性良慕古足文才
人也胡爲天禍酷

얼룩소 새끼지만 털 붉고 뿔까지 났는데
그 사람 어이하여 하늘 재앙 끝까지 다 만나
진실한 성품에 옛 도를 사모하고 글재주까지 있는데
그 사람 어이하여 하늘 재앙 혹독히 만나.

위에서 인용한 시는 순서대로 옥동의 문집 권 2에 실려 있는 「哭宗姪夢休」와 문집 권 3에 실려 있는 「挽宗姪憲休」, 그리고 문집 권 2에 수록되어

있는 『望哭李鵬瑞』 2수이다. 조카 이현휴를 제외한 두 사람은 모두 옥동보다 어린 나이에 옥동보다 먼저 생을 마감한 인물들이다.

첫 번째 시의 대상인 李夢休는 옥동과 同行인 李滢의 아들로 자는 應瑞이고 1673년(현종 14) 태어나 1699년(숙종 25) 5월 16일 운명하였으니 대략 27년 정도 살았다. 효행으로 특히 이름이 났으며 密陽朴氏와 혼인하였다. 두 번째 시의 대상인 李憲休 역시 옥동과 同行인 李澍의 아들로 자는 崇文이고 1655년(효종 6) 태어나 1705년(숙종 31) 정월 17일에 운명하였으니 대략 51년 정도 살았다. 文化柳氏 正郎 柳軸의 딸과 혼인하였다. 마지막 두 수의 대상인 李鵬瑞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옥동이 이 시의 自註에서 “일찍이 나에게 수업을 받았다[曾受業于我]”고 한 것으로 보아 옥동의 제자인 듯 하고 두 번째 시에서 『論語』의 『雍也』篇을 인용하여 “얼룩소 새끼지만 털 붉고 빨까지 났”다고 한 것으로 보아 李鵬瑞의 출신이 그다지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되지만 더 이상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여기서 인용한 시 4수의 내용이나 그 속에 담겨 있는 옥동의 정서는 앞에서 살펴본 시와 같다. 그의 조카이고 또 제자였다는 점에서 그들의 죽음은 옥동에게 많은 感慨를 주었을 것이고 옥동 역시 서러움을 느꼈을 것이지만, 옥동의 만시에는 그와 같은 정서에 대한 어떤 언급도 담겨 있지 않다. 이 시에는 이들의 생전 행실이 어떠하였는지, 이들이 목표한 인생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서술만 나올 뿐이다. 다만, 李憲休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시에서 『論語』 『雍也』篇의 “지혜로운 사람은 즐거워하고 어진 사람은 장수한다[知者樂 仁者壽]”는 구절과 『周易』 『坤卦·文言』에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積善之家 必有餘慶]”는 구절을 인용하여 李憲休의 사람됨과 그 사람됨으로 인한 보상이 후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살펴본 옥동 만시의 두 특성은 자연스럽게 다음 세 번째 특성을 유도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옥동의 만시가 지니는 세 번째 특성은 개인 정서의 억제이다. 이 특성은 옥동의 만시가 유가적 도덕 교육의 도구로, 비탄보다 칭양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실 옥동의 시 대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서가 절제된 감정이다. 그의 시에서는 개인적인喜怒哀樂의 정서가 최대한 절제되어 표출된다. 이와 같은 정서의 표출 방법은 그의 문학론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특징이 그의 시를 일반적인 문인들의 시와 구분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시를 보도록 한다.

五齡痘夭女星英	다섯 살에 마마로 딸 성영을 잃었는데
孟敬今胡痘五齡	맹경도 지금 어찌 다섯 살에 마마 걸렸나.
悅爾感從心上起	멍하니 서글픔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宛然形在眼中行	또렷하게 그 모습이 눈앞에서 움직이네.
星乎水雪兼蘭蕙	성영은 얼음 눈에다 난초 혜초 곁했었고
敬也聰明儘孝誠	맹경은 총명한데다 효성을 다 갖추었지.
腸若有知應裂盡	장이 만약 안다면 응당 다 찢어질 테니
莫聽巴峽斷猿聲	파협의 장 끓어진 원숭이 소리 듣지 말게.
爾哭吾還哭	네 울음을 내가 도리어 우니
殃乎此酷然	재앙이구나 어찌 그리 혹독한가
遊魂已碧落	떠도는 혼 이미 푸른 하늘 저 멀리 가 버리고
守魄亦黃泉	머물던 백도 황천으로 가버렸을 테지만
悅爾聲遺耳	멍하니 네 목소리 귀에 남아 있고
依然面在前	옛 처럼 네 얼굴 눈앞에 있으니
殃乎何所恨	재앙이로구나 어디를 한할 것이며
命也奈蒼天	명이로구나 푸른 하늘을 어이할까나.

이 두 수의 시는 옥동의 문집 권 3에 수록되어 있는 시이다. 이 두 수의 시는 가운데 「贈淨慧上人」이라는 한 수의 시를 두고 이어져 있으며, 시의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시라고 생각된다. 「余二十二時, 以痘喪五歲女星英, 今四十三, 又以痘亦喪五歲女孟敬, 怪哉. 爲作一詩, 以識悲懷」라는 첫 시의 제목으로 보아 이 시는 옥동의 나이 43세 되던 1704년(숙종 30) 그가 두 번째로 마마 때문에 5살 된 딸 孟敬을 잃은 뒤 쓴 시이고, 두 번째 시는 「忽思五歲死女孟敬」이라는 제목으로 보아 죽은 孟敬이 갑자기 그리워 쓴 시라고 생각된다. 두 시 모두 만시는 아니지만, 옥동 시의 절제된 감정 표출 양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시라고 생각해 인용해 보았다.

이 두 수의 시는 모두 5살이 된 딸을 잃고 쓴 시이다. 부모의 죽음은 天崩之痛・罔極之恨이라고 하거나 『禮記』 「祭義」篇을 인용하여 悽愴之心 혹은 怵惕之心¹³⁾이라고 한다. 모두 부모의 죽음을 접한 자식의 아픈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 자식의 죽음을 표현한 용어는 그다지 많지 않다. 子夏가 아들을 잃고 상심하여 눈이 멀었다는 喪明 정도가 있을 뿐인데, 이는 부모에 앞서 자식이 죽는 예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의 죽음을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이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흔히 부모가 죽으면 자식은 부모를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한다.

위에서 인용한 두 수의 시가 자식의 죽음에 쓴 시이고, 그 두 자식이 모두 겨우 5살에 마마로 죽음을 당했다는 점에서 옥동이 느낄 한의 정도를 익히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옥동은 첫 시의 마지막 연에서 “장이 만약 안다면 응당 다 찢어질 테니 과협의 장 끊어진 원숭이 소리 듣지 말”라고

13) 「祭義」, 『禮記』, “霜露既降, 君子履之, 必有悽愴之心, 非其寒之謂也. 春雨露既濡, 君子履之, 必有怵惕之心, 如將見之.”

했다. 그러나 다음 시에서는 다시 “재앙이로구나 어디를 한할 것이며, 명이 로구나 푸른 하늘을 어이할까나”라고 하여 상황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감정을 절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옥동의 모습을 익히 짐작할 수 있다. 자식의 죽음에서 느끼는 서러움을 절제하고자 하는 옥동의 모습이 독자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옥동이 자식의 죽음이라는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자 했던 모습에서 평소 지니고 있었던 그의 의식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식의 죽음을 접하고 쓴 시에서 볼 수 있는 옥동의 의식과 정서는 그의 만시에 내포될 정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이와 함께 제한되고 절제된 정서를 유지하면서 교육적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옥동은 전고의 사용이라는 용사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제한된 글자 속에 보다 많은 내용을 응축하기 위한 보편적인 서사 기법이 典故의 用事라는 점에서 옥동의 선택은 한시 창작의 보편적인 기법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법의 사용은 서술의 편폭을 확장한다는 장점을 가지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문학 작품이 지녀야 할 창조성·독창성·참신성을 제약하여 그의 만시가 보편적이고 상투적인 내용과 표현 속에 매몰되게 만든다. 구체적으로 시를 보도록 한다.

對子之兒想子容	그대 아들 대하고서 그대 모습 떠올리니
斑斑雙袖淚龍鐘	두 소매에 얼룩덜룩 눈물 흥건하구나.
早將情曲時相啓	어려서는 간곡한 정 때로 열어 보이다가
老作隣閭日與從	늙어서는 이웃되어 날로 같이 어울렸지.
鶴去一千年不返	학은 한 번 가서는 천 년 되도 안 돌아오지만
劒離三十歲重逢	칼은 헤어진 지 삼십년 만에 다시 만났네.
幽明自此音儀隔	이승 저승 이제부터 음성 모습 멀어지리니
泉路沉沉閑幾重	황천 길 어둑어둑 몇 겹으로 막혀 있겠지.

이 시는 옥동의 문집 권 2에 수록된 「代姻叔題挽」이다. 옥동의 만시 중 남을 대신하여 써 준 유일한 시라는 점에서 특이한 시이기도 하지만, 시 속에 서러움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 더 특징적이다. 이 시의 첫 연에서 옥동은 “그대 아들 대하고서 그대 모습 떠올리니, 두 소매에 얼룩덜룩 눈물 흥건하구나”라고 하여 죽은 자의 곁여와 살아남은 그 사람의 아들을 대비시켜 존재와 상실, 생과 사의 대립이 주는 서러움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옥동은 頸聯에서도 崔顥의 「登黃鶴樓」시¹⁴⁾를 인용하여 천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학과 삼십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칼을 대비하여 이별과 만남·영원과 찰라·유상과 무상의 감정을 대립시키고 있다.

이 시에서 옥동이 서러운 감정을 직접적으로 노출한 것은 이 시가 고모부[姻叔]를 대신하여 써 준 시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즉, 자신이 자신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 쓴 시가 아니라 고모부의 청탁으로 썼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된 것이라 보인다. 그 자신의 이름으로 창작하여 죽은 사람의 생전 행적과 의식세계를 드러내기 보다는 고모부를 대신해 창작해야 했기 때문에 이 시는 교육적 도구라는 옥동의 만시가 지니는 또 다른 기능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옥동도 그 자신의 만시 창작 방법과 다른 방향에서 시를 지어야 했다고 보인다.

持志常平坦	가진 뜻 언제나 평탄하여서
生平免大非	한 평생 큰 잘못 면하였었지만
盤乏單蔬食	소반에는 한 그릇 밥도 없었고
身無一美衣	몸에는 좋은 옷을 걸쳐본 적 없었지.

14) 崔灝, 「黃鶴樓」, “昔人已乘黃鶴去, 此地空餘黃鶴樓。黃鶴一去不復返, 白雲千載空悠悠。晴川歷歷漢陽樹, 芳草萋萋鸚鵡洲。日暮鄉關何處是, 煙波江上使人愁。”

貧窮知分義	가난하고 곤궁해도 분수 의리 알아서
靜默愼樞機	고요히 앉아서 본연의 도리 삼갔었지.
悵悵相尋地	서글프게도 그대 계신 곳 찾아와서는
含悲對夕輝	서러움 머금고 석양빛만 마주하네.

才德如公未享年	재주와 덕 공 같은데도 수를 못 누리시니
有疑無路質於天	괴이하지만 하늘에 물어볼 길이 없네.
乾坤從此知音少	이제부터 온 천하에 알아주는 이 없으리니
獨立斜陽思黯然	석양 아래 홀로 서서는 절로 서글퍼지네.

이 두 수의 시는 옥동의 문집 권 1에 수록된 『哭鄭戚丈搏』와 문집 권 2에 수록된 『挽金處士碩堅丈』 2수 중 두 번째 시이다. 모두 옥동의 윗사람으로, 첫 시의 鄭搏은 宋昌明(1689년(숙종 15)~미상, 字 盛叔)의 장인이자 草溪鄭氏 鄭憲章(1653년(효종 4)~미상, 字 汝新)의 아버지가 아니었는가 생각되지만, 두 번째 시의 대상인 金碩堅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제목에서 處士라고 한 것을 보아 세상을 피해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시와 같이 이 시도 鄭搏과 金碩堅의 생전 행적과 의식 세계에 대한 충실한 묘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가난하지만 가난에 구애되지 않고 자신이 추구했던 도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갔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옥동 만시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의식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옥동이 만시를 통해 이들의 삶을 묘사해낸 것은 그들의 삶이 주변 인물들을 교화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이 두 수의 시 속에서도 옥동의 정서는 절제되어 드러나지만, 첫 번째 시와 두 번째 시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 첫 번째 시에서 옥동은 “서글프게도 그대 계신 곳 찾아와서는, 서러움 머금고 석양빛만 마주하네”

라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自註에서도 밝혔듯이 “만나 뵈려고 찾아왔지만, 이미 공이 죽었[初爲訪見而去, 公已逝矣]”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시에서 옥동은 金碩堅의 죽음을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이제부터 온 천하에 알아주는 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옥동을 알아주고 그의 삶을 인정해 주었던 사람이 金碩堅이었는데, 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 시가 1697년(숙종 23) 옥동의 나이 36세가 되던 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이 시는 옥동의 생애 앞부분에서 창작된 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표현은 金碩堅의 죽음에서 느끼는 옥동의 깊은 서글픔을 표현한 것이면서 동시에 이 시기까지 이루어진 옥동의 수양이 이후 시기의 시에서 볼 수 있는 감정과 욕구의 깊이 있는 절제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다른 시를 보도록 한다.

仁厚之人淨正人	어질고 너그러운 맑고도 바른 사람
人於斯世鮮其倫	사람 사는 이 세상에서 짝할 사람 드문데
如何捨我先歸去	어찌하여 나 버리고 먼저 돌아가 버려서
使我如亡半我身	내가 내 몸 절반을 잃은 듯 하게 만드나
賢如伯道又無兒	백도처럼 어질어선지 아이도 없으니
終古天心未可知	마침내 하늘 뜻을 알 수가 없구나.
堪悲吾類多零落	서럽구나 나와 같이 한 이들 거의 다 영락하니
耿耿中宵涕自垂	말똥말똥 한 밤중에 눈물만 절로 흐르네.
三世通家誼	삼 대 동안 집안 우의 통해왔었고
交從竹馬時	교분은 대말 타고 놀던 그 때부터였지
直性元無苟	굳은 성품 애초부터 구차함이 없었고

眞心自不欺	참된 마음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지
永言生終始	살아 처음과 끝 같이 하자 길이 말했었는데
誰知死別離	죽어 이렇게 헤어질 줄 누가 알았으랴
有時見令胤	그대 자식들 만날 때가 있으면
相對涕交頤	마주 하고 눈물만 턱에 고이리.

여기서 인용한 시의 첫 두 수는 옥동의 문집 권 2에 나오는 「哭尹友道一」이고 마지막 시는 문집 권 4에 나오는 「挽許參奉 宜」이다. 이 시들의 창작 대상은 모두 옥동의 友人이었다고 생각되는데 尹道一은 茂松尹氏 尹詢의 아들이자 尹道亨(1602년(선조 35)~미상, 字 亨甫)의 동생이고, 許宜는 宜寧南氏 南泰堦(1701년(숙종 27)~미상, 字 幼升)의 장인인 듯한데,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이 세 수의 시도 앞에서 살펴본 시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尹道一과 許宜의 생전 행적과 의식을 중심으로 한 생애 서술이 시의 중심이 된다. 다만, 이들의 죽음에서 옥동은 적지 않은 서러움을 느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옥동이 이들의 죽음을 “어찌하여 나 버리고 먼저 돌아가 버려서, 내가 내 몸 절반을 잃은 듯 하게 만드나”라거나 “서럽구나 나와 같이 한 이들 거의 다 영락하니, 말뚝말뚝 한 밤중에 눈물만 절로 흐르네”, “그대 자식들 만날 때가 있으면 마주 하고 눈물만 턱에 고이리”라고 하여 자신의 감정을 시 속에 직접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尹道一의 죽음을 접하고 쓴 시의 두 번째 수에서 옥동은 쯔나라의 鄧攸(字, 伯道)가 亂賊을 만났을 때 일찍 죽은 아우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버리고 갔다는 고사를 인용하여 後嗣도 없이 죽은 尹道一의 죽음을 슬퍼하였는데, 이 두 번째 수 전체가 尹道一의 죽음을 애도하는 옥동의 정서를 절제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까지 살펴본 시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文章未就九包翰	문장 아직 아홉 겹 한림에 못 나갔는데
雲鎖丹山夜月寒	구름 덮인 붉은 산에는 밤 달이 차네.
才格俊如千里馬	재주와 자질은 천리마처럼 뛰어났고
筆鋒豪作百層巒	글 솜씨는 수 백 겹 층진 산같이 높았네.
傑懷落落松腸胃	큰 회포는 드높아 소나무를 장 위 삼았고
直氣森森竹肺肝	곧은 기운 우뚝하여 대나무를 폐 간 삼았네.
嗟我獨留斯世上	아아 홀로 이 세상에 남아
爾之長逝忍先看	네가 먼 길 가는 것 차마 먼저 보게 될 줄이야.

二句之七一邯鄲	스물 일곱 평생이 한단의 한 꿈 같으니
萬事人間揚鼻酸	인간 만사 모든 일이 코끝을 시큰 거리네.
風撼連枝鴛失偶	바람이 흔든 가지에 원앙은 짝을 잃고
霜悲荊樹鴈驚寒	서리 슬픈 자형나무 기러기 추위에 놀라네.
奇才有地文筆筆	기이한 재주 이 땅에서 문장과 필법 겸했고
直性由天義且寬	곧은 성품 하늘에서 의로움과 너그러움 받았네.
春府可堪當歲暮	그대 아버지 올 봄을 건널 수 있겠는가 만은
謝庭何幸一叢蘭	그대 집안에 한 떨기 난초 남아 있으니 다행일세.

이 시는 옥동의 문집 권 2에 수록되어 있는 『挽宗姪李夢休』 2수이다. 李夢休의 죽음에 대해 옥동은 모두 3수의 만시를 지었는데, 나머지 한 수의 시는 앞에서 이미 살펴본 『哭宗姪夢休』이다. 옥동이 3수의 만시를 지었다는 것은 그와 李夢休가 상당한 친분을 지니고 있었으며, 또, 李夢休의 삶이 그만큼 드러내어 칭양할 것이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인지 이 두 수의 시에서 옥동은 李夢休의 재주와 능력 그리고 그가 품고 있었던 뜻에 대해 언급하면서 “아아 홀로 이 세상에 남아, 네가 먼

길 가는 것 차마 먼저 보게 될 줄이야”라고 하여 李夢休의 죽음에서 느낀 자신의 서러운 상실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시에 묘사된 옥동의 서러운 상실감은 “코끝을 시큰”거리게 하는 것이었고, 李夢休의 죽음을 그의 부친이 쉽게 견딜 수 없겠지만, “그의 집안에 남아 있는 한 딸기 난초”로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스물일곱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어린 조카의 죽음을 대한 삼촌의 이야기로는 상당히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용한 시의 두 번째 수는 상당히 많은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首聯에서는 邯鄲夢의 고사를 차용하여 李夢休의 일생이 盧生이 邯鄲의 여관에서 꿈 한낮의 꿈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고, 頤聯에서는 連枝와 중국 南朝 梁나라 吳均의 『續齊諧記』에 나오는 紫荊나무 이야기를 인용하여 형제간의 우애를 설명하였고, 尾聯에서는 『晉書』 卷 79의 「謝玄列傳」에서 謝安과 그의 조카 謝玄이 나눈 이야기 중 謝氏의 딸이라는 말을 이용하여 李夢休의 집안에 훌륭한 자제가 많다는 것을 말하였다. 이와 같은 고사의 사용은 李夢休라는 인물과 그의 죽음이 지나는 안타까움에 대한 서술의 범주를 확대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李夢休의 죽음에서 느낀 옥동의 안타까운 정서를 상투화하고 관념화한다는 단점 또한 적지 않게 지닌다.

IV. 玉洞의 輓詩에 드러난 死生觀

앞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옥동의 만시는 자신이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대상으로 하여 비탄의 정서보다는 청양을 중심으로 하여 창작된 것이다. 이를 위해 옥동은 죽은 사람에 의해 야기되는 결핍의 정서를

조절하여 절제되고 제어된 감정을 시로 표현하였고, 이와 같은 만시를 창작하여 살아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 교육을 하고자 하였다고 생각된다. 또, 만시를 도덕적 교육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적인 결핍의 정서를 억제하고 죽은 사람에 의해 일어나게 될 사회적 결여와 상실을 중심으로 만시를 서술하였고, 이를 위해 고사를 사용하여 진술의 편폭을 확장하였다.

옥동의 이와 같은 만시 창작 방법은 그의 사유세계와 문학관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옥동은 朱子를 거쳐 退溪에 의해 確立된 理氣二元論的인 사고를 지니고 있었다. 옥동에 의하면 理와 氣는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지만, 先後와 輕重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옥동은 理를 현상의 본질이자 원칙으로 인식하고 氣를 행위로 이해하여 理와 氣를 구분하여 인식하였다.¹⁵⁾

이러한 인식에 따라 옥동은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죽고 난 뒤의 세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옥동이 人間界와 冥界를 확연하게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었고,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죽음이라는 상황에 대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뜻이다. 앞에서 인용한 그의 만시에 보이는 “그 재주 가졌지만 그 운명을 어찌하겠나[有才其奈命]”나 “재앙이로구나 어디를 한할 것이며, 명이로구나 푸른 하늘을 어이할까나[殃乎何所恨, 命也奈蒼天]”와 같은 표현에서 옥동의 이와 같은 의식을 분명히 볼 수 있다.

특히 그는 人間界와 冥界는 서로 관여할 수 없는 세상이기에 冥界에 들어간 인간의 혼령은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계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분명한 幽明 구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옥동은 죽음 이후의

15) 尹載煥, 『玉洞 李滉의 理·氣對立的 思惟樣式과 그 意味』, 『東洋古典研究』 49, 東洋古典學會, 2012, pp.193-199.

再生이나 還生과 같은 不可解한 상황에 대해서는 일체 고려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의식은 옥동의 만시에 나오는 “이승 저승 이제부터 음성 모습 멀어지리니, 황천 길 어둑어둑 몇 겹으로 막혀 있겠지[幽明自此音儀隔, 泉路沉沉閑幾重]”와 같은 표현이나 “살아 처음과 끝 같이 하자 길이 말했었는데, 죽어 이렇게 헤어질 줄 누가 알았으랴[永言生終始, 誰知死別離]”와 같은 표현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옥동이 가지고 있었던 幽明 구분의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평생의 뜻 이루기도 전에, 하늘은 어이 하여 이리 급히 그대 데려갔나[未就平生志, 天胡遽奪君]”나 “어찌하여 하늘은 재앙을 내려, 그대 몸에 이렇게 미치게 하는가[如何天降禍 亦及子之身]”와 같은 표현은 죽음이라는 것이 現象界에 존재하는 인간의 삶을 마무리 짓는 것이고, 이 죽음 이후에 인간은 더 이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現象界에 개입할 수 없으며 반대로 살아있는 인간도 冥界의 혼령과 접하거나 冥界에 개입할 수 없다고 인식한 옥동의 아쉬움과 서글픔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옥동은 이렇게 죽음을 인간의 마지막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죽음 뒤에 접하게 될 冥界나 죽음을 극복한 再生 혹은 還生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인간의 죽음을 天命의 결과로 인지하고 順應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식과 함께 옥동은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인간의 수명은 늘어날 수 있다고 보았고, 天命의 不祥에 의해 수양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수양의 결과는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사람과 천지는 하나의 기운이다. 그러므로 정성스러우면 감응하게 된다. 기는 반드시 같은 율을 따른다. 그러므로 마음이 바르면 상서로움이 이르는 것이다.¹⁶⁾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남은 기운이 있으니 부여받은 기의 두텁고 얇음에 따라 남은 기운의 흩어짐에 빠르고 늦음이 있다. 효자의 마음은 남은 기운이 오래 머무르게 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좋은 땅을 택하여 살아서 혼백의 기운과 산의 기운이 하나로 합해 응기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물이 오래되면 흩어지는 것이니 비록 천지라 하더라도 흩어진다.¹⁷⁾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것은 이치의 떳떳함이다. 선은 양의 도이고 악은 음의 도이다. 복은 선한 응답이니 또한 양의 도이고, 재앙은 악한 응답이니 또한 음의 도이다. 같은 소리가 서로 응답하고 같은 종류가 서로 모인다. 그러므로 선한 자는 복을 받고 淫惡한 자는 재앙을 받는다.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선하지 않은 것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남은 재앙이 있다. 혹 선을 행하였으나 참혹한 재앙을 입는 자도 있으니 때를 헤아리지 못하고 삼가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불행이다. 혹 악을 행하였으나 재앙을 입지 않는 자가 있으니 요행히 면한 것이다. 선한 이에게 복을 주고 淫惡한 이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은 이치의 떳떳함이고, 선한 이에게 재앙을 주고 淫惡한 이에게 복을 주는 것은 이치의 變道이다. 성인께서는 반드시 그 떳떳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 變道를 말씀하시지 않으시니 怪力亂神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으로 알 수 있다. 선한 자가 재앙을 받는 경우는 적고 악한 자가 재앙을 받는 경우는 많으니 성인께서는 반드시 많은 경우를 따르신다. 선을 쌓은 집에 남은 경사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떳떳한 도이기 때문이다. 선하지 않은 일을 쌓은 집에 남은 재앙이 없는 경우는 드무니 이 또한 떳떳한 도이기 때문이다. 선을 쌓은 집에 남은 경사가 없는 경우도 드무니 變道이기 때문이다.¹⁸⁾

16) 李激, 『論天人一氣』, 『弘道先生遺稿』 卷 8, “人與天地一氣. 故誠則相感. 氣必從類. 故心正則祥瑞至焉.”

17) 李激, 『論死氣, 兼論地理』, 『弘道先生遺稿』 卷 7, “人之死, 必有餘氣, 所稟之厚薄, 餘氣之散, 有遲速. 孝子之心, 欲餘氣之久留. 故擇吉而乘生, 使魄氣與山氣合一而凝結. 然物久則散, 雖天地亦有散.”

18) 李激, 『論福善禍淫』, 『弘道先生遺稿』 卷 7, “好善而惡惡, 理之常也. 善陽道也, 惡陰道也. 福善應也亦陽也, 禍惡應也亦陰也. 同聲相應, 同類相聚. 故善者福之, 淫者

여기에서 인용한 글들은 모두 옥동의 문집 잡저편에 나오는 글들이다. 이 글을 보면 옥동은 福善禍淫이라는 儒家的 應報體系를 굳건하게 믿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옥동은 인간세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禍善福淫의 경우에 대해 變道로 드문 것이라고 하여 요행을 바라는 인간의 의식이 싹트지 않도록 주의하는데 노력했다.

인용한 첫 번째 글에서 옥동이 사람과 천지가 하나의 기운이기 때문에 정성스러우면 상서로움이 이르게 된다고 한 것이나 두 번째 글에서 효자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은 모두 인간의 정성에 대한 것이다. 옥동은 인간의 정성이 이르게 되면 인간은 복을 받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옥동이 생각한 인간이 받게 되는 복에는 개인적인 수명까지 포함되는 것이라 보인다.

옥동이 그의 만시에서 “어질고 수를 누릴 그 조짐 나 믿었지만, 지금 정로 죽었으니 참 의심스럽네[仁壽之徵我信之, 今於正路却生疑]”라는 표현이나 “진실한 성품에 옛 도를 사모하고 글재주까지 있는데, 그 사람 어이하야 하늘 재앙 혹독히 받나[性良慕古足文才, 人也胡爲天禍酷]”라는 표현은 수양된 인간, 선을 행한 인간은 당연히 壽福을 받아야 한다는, 옥동이 생각했던 常道가 구현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서글픔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데 옥동이 위에서 인용한 세 번째 인용문 『論福善禍淫』에서 강조한 餘慶은 현재로 한정되는, 혹은 그 자신에게 한정되는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만시에서 “그 재주 가졌지만 그 운명을 어찌하겠

禍之. 積善之家, 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餘殃. 或有善而被慘禍者, 不量時而不謹也, 不幸也. 或有惡而不被禍者, 幸而免也. 福善禍淫, 理之常也. 禍善福淫, 理之變也. 聖人必論其常而不論其變, 不語怪力亂神則可知也. 禍善者寡, 禍惡者多, 聖人必從多也. 積善之家, 有餘慶者多, 常道故也. 積不善之家, 無餘殃者鮮, 亦常道故也. 積善之家, 無餘慶者亦鮮, 變道故也.”

나만은, 남은 경사 정녕코 끝이 없겠지[有才其奈命, 餘慶定無窮]”라거나 “이름 떨치는 건 죽고 난 다음에 있으니, 덕의 아름다움 반드시 흘러 전하리[揚名身後在, 德美必流傳], “수명과 지위 다하지 못했다 탄식하지 말게나, 아름다운 이름 다음에 반드시 높이 기릴 테니[年位莫嗟猶未滿, 美名他日定崇褒]”라고 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옥동의 만시에 나타나는 옥동의 의식을 死生觀念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의 만시는 유가적 의식세계에 확고했던 옥동이라는 인물이 주변 인물의 죽음을 접하고 느낀 안타까움과 함께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유가적 도를 구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옥동의 만시가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시의 기능에서는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만시의 본래 기능에 충실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생전에 옥동이 이들과 교유하여, 옥동이 죽은 사람의 성품과 행적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옥동은 만시를 통해 그들이 추구하고 지향했던 세계를 분명히 밝힌 것이고 또, 이를 통해 죽은 사람을 올바른 방향에서 진심으로 애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교화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옥동의 만시는 그가 추구하고 있었던 세계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추구하고 있었던 세계까지 서술하여 죽은 사람을 稱揚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V. 結論

옥동 이서는 생의 대부분을 은거지에서 은거하여 讀書·修道하며 講學하는 삶을 살았다. 따라서 그의 삶은 조선 후기 당대 그의 가문에 몰아닥친

정치적 풍파에서 한걸음 물러서 있는 것이었고, 그만큼 그는 개인적·사회적 수양을 최상의 가치로 인식하고 있었다. 도덕적 수양을 최상의 가치에 두고 있었던 옥동의 의식은 주변 인물들의 죽음을 접하고 쓴 만시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그의 만시는 죽은 사람에 의해 야기된 결핍이 주는 비탄의 정서보다는 죽은 사람의 삶을 되짚어 칭양하는 모습으로 구현되었는데, 이는 옥동과 그의 주변 인물들이 지니고 있었던 인식과 세계관에 기인한 것이라 보인다. 옥동은 주변 인물의 죽음을 통해 느낀 서러움을, 서러움으로만 표현하는데 그치지보다는 서러움을 넘어서 살아있는 주변 인물들에 대한 교육의 계기로까지 활용하고자 했다. 따라서 그의 만시는 죽은 사람의 생전 행적과 삶의 지향점을 묘사하고 이를 통해 죽은 사람이 추구했던 삶이 가지는 가치를 선명하게 드러내어 칭송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옥동의 만시가 지니는 이와 같은 특성은 그의 만시가 만시 창작의 근본적인 이유에서 떨어진 것 같이 보이게 만들기도 하지만, 옥동이 죽은 사람의 평소 행적과 성품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만시를 통해 죽은 사람을 진심으로 추모하고 宣揚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옥동의 만시가 만시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옥동의 만시가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특성을 옥동만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옥동의 만시가 지니는 특징적인 면모는 조선조 도학자들의 만시 대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성격이라고 생각된다. 옥동의 의식세계와 삶의 궤적을 돌이켜보고, 그의 글들을 접해 보면 그가 전형적인 조선조 도학자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얼마 되지 않지만 조선조 도학자들의 만시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결과¹⁹⁾와 옥동의 만시를 비교해 보면 이와 같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옥동의 만시는 조선조 도학자들의 만시가 지니는 전형적

인 모습의 하나를 확장한 것이라고 유추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을 구체화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대 창작된 도학자들의 다양한 만시와 옥동의 만시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이 그와 같은 단계에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글은 조선조 당대 도학자들의 만시가 지니는 보편적 속성의 탐색을 위한 시론의 하나가 될 뿐이고, 이 글에서 언급한 조선조 도학자 만시의 특성이라는 것도 잠정적인 가설에 머무르게 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 한계의 극복은 다음 글에서 기약하기로 한다.

-
- 19) 조선조 도학자들의 만시에 관한 선행연구가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필자가 참고한 몇 편의 논문을 소개한다. 송준호, 『儒學者 詩에 있어서 그 한 典型에 대한 考察 : 愼獨齋 金集의 詩를 中心으로』, 『인문과학』 75,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pp.1-19; 전재강, 『寒岡 挽詩의 성격 연구』, 『국어교육연구』 46, 국어교육학회, 2010, pp.245-274; 최윤정, 『서계 박세당의 挽詩 연구 - 悼朋詩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44, 동양고전학회, 2011, pp.79-106.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高麗史』

『禮記』

姜栢年, 『雪峯遺稿』

李敏求, 『東州先生文集』

李 潏, 『弘道先生遺稿』

李學達, 『洛下生集』

2. 논문 및 단행본

朴浚鎬, 「惠寔 李用休 文學 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9, p.128.

송준호, 「儒學者 詩에 있어서 그 한 典型에 대한 考察 : 慎獨齋 金集의 詩를 中心으로」, 『인문과학』 75, 연세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1997, pp.1-19.

안대회, 「한국 한시와 죽음의 소재」, 『韓國 漢詩의 分析과 視角』,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p.60.

———, 「韓國 漢詩와 죽음의 문제」, 『韓國漢詩研究』 3, 1995, pp.50-51.

尹載煥, 「玉洞 李潏의 文學觀 研究」, 『東方漢文學』 27, 東方漢文學會, 2004, pp.228-234.

———, 「玉洞 李潏의 理·氣對立的 思惟樣式과 그 意味」, 『東洋古典研究』 49, 東洋古典學會, 2012, pp.204-211.

전재강, 「寒岡 挽詩의 성격 연구」, 『국어교육연구』 46, 국어교육학회, 2010, pp.247-248.

최운정, 「서계 박세당의 挽詩 연구 - 悼朋詩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44, 동양고전학회, 2011, pp.79-106.

최재남, 『韓國哀悼詩研究』,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p.42.

Abstract

The aspect of memorial poem in the Joseon Dynasty by review of
Ok Dong Lee Seo's memorial Poem

- An essay to investigate the character of moralist's
memorial poem -

Yoon, Jae-Hwan

This writing is objected the memorial poem by Okdong Leeseo. This writing is one of the series under the big title of the investigation about poetry world of Okdong Leeseo who is not well know. In this writing, I tried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meaning and his view of life and death expressed in his memorial poem. At the same time, if I can verify the different characters between the memorial poem by Okdong Leeseo considered moralist and other memorial poem by other writer, then I think a clue can be investigated to check the characteristic of memorial poem by moralist in Joseon dynasty. This is my second purpose of this writing.

Okdong Leeseo wrote 67 memorial poems with 55 different titles. That is 5% of poems that he wrote, and these poems were expressed the object person's past living and his mental world then focusing on Okdong Leeseo's sadness after that people's death. And Okdong's memorial poem was more focused on admiration than grief so his moral assessment of the objected person is usual. Okdong's memorial poem has three characteristics. He only wrote memorial poem about the person he knew so the first characteristic is about the object of his writing. It is considered to be closely related with that Okdong focused on the life how the dead person lived. The second is that Okdong more focused on admiration than sadness in his memorial poem. This is considered that his poem was used to express his sadness and to edify the people around him on education purpose. The third one is the control

of personal feeling and the use of selection. This can be reasonable to say that Okdong's memorial poem was used as a tool on purpose of confucian education because the poem was more focused on admiration than express sadness.

Okdong's memorial poem was expressed his sadness about the people's death he knew by Okdong who had very clear confucian mind, and was used to realize his confucian morality and to make understand this to the people around him. This characteristics are not rare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memorial poem but more close to general function of memorial poem. Okdong was a friend of the dead people and he knew enough about their characters and past livings, so he clearly expressed their pursuing world and could sincerely express his sadness in right direction through memorial poem additionally. At the same time, he could edify the people around him. In this point, it can be said that Okdong's memorial poem expressed his and the dead people's pursuing world together to admire them.

So Okdong's memorial poem can be inferred as one of the typical characteristic of memorial poem by moralist in Joseon dynasty. To make this review more clear and sure, other memorial poems by other moralist and Okdong's memorial poem have to be analyzed in more detail. This writing couldn't reach the stage yet so it has the limitation to be one of essay to review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moralist's memorial poem in Joseon dynasty.

Key Word : Okdong Leeseo, moralist, memorial poem, sadness, admiration

윤재환

소속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448-7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 031-8005-3019 / 010-9871-1037

전자우편 : inse-yoon@hanmail.net

이 논문은 2013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3년 12월 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12월 10일 게재 확정됨.